

삶속에 정법실현 '승가 의무'

선우도량 '미래사회와 승가상' 세미나

미래사회에 있어 승가의 존재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승종진작과 승려의 기강 확립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3일 실상사에서 선우도량(상임 대표 해담)이 '미래사회와 승가상'이라는 주제로 수련결과를 갖는다.

“미래사회와 승가”라는 기초강연을 담당한 홍선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미리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려지고 그 삶을 통해서 정법의 실재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 승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자비가 곧 예로요, 예애가 곧 자비이며, 대자비가 곧 불성”이라는 열반경을 예로 든 스님은 “이는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승가사회 속에서 이러한 사상이 과연 살려



◇홍선스님

◇선우도량

◇박선스님

미래사회의 승가상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는 홍선스님(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앞으로 종교의 사회적 영역은 점점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승가상 확보는 ‘기대와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아라한적인 태도나 선적인 방법에 미래의 승가상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승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홍수처럼 불어나는 정보를 대중들이 생활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 해담스님(선우도량 상임 대표)이 초기불전, 대승경전 등 ‘경전에 나타난 승가상’에 대해 발표하며 원철스님(해인사 승가대학 중장)과 지오스님(불광사 주지)이 각각 논평자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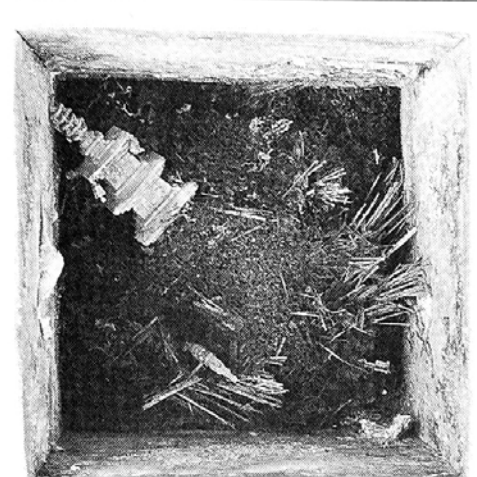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열린사고 바탕 문화·사상운동 이끌어야 단순지식 전달보다 정보 생활접목 제시

사회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요인일뿐 아니라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미래사회의 주요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전말씀을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접근과 의지를 제언했다. 스님은 또 ‘유마경’의 불이법문(不二法門), ‘화엄경’의 중중무진 사사무에(重重無盡 事事無礙)의 법문, ‘법화경’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법문으로의

접근은 물론 이것이 수행하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승가 교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승가 자신들 또한 열린 사고로써 갈등과 도전의 본질을 보는 눈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디사트바, 그 역사적 변용’을 제목으로 발표하는 법선스님(선우도량 교육위원장)은 승가를 각(覺)운동의 주제로 보고, 승가는

생활문화 정치문화운동의 주제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스님은 사상과 수행의 근거지로서의 이관(사찰의 의미)은 그러한 문화운동, 사상운동의 기지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스님은 신·구·의·서원 안락행(身·口·意·誓願 安樂行)을 행하는 보디사트바의 승가적 구현이 미래사회의 승가상이라고 제시했다.



◇신라시대 유행했던 사리장엄방식을 보여주는 월성 오층석탑 금동사리합이 열린 모습.

신라 사리장엄방식 연구 자료

월성 오층석탑 금동사리합 발견 의의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원리 ‘월성 내원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합 안에 들어 있는 금동탑은 신라시대 유행했던 사리장엄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탑속에 작은 소탑을 봉안한 이와 같은 방식은 99기의 작은 탑을 만들고 그 속에 4층 다라니를 써서 넣어 불탑 속에 공양하면 99만천의 불사리

한다는 신앙심이 깃들어 있으며, 신라불교의 특색인 호국불교의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조사된 탑으로 99개의 소탑을 지니고 있는 석탑으로는 대구 동화사 금당 서탑과 경북 봉화 서동리 동탑, 불국사 석가탑, 황룡사지 9층탑 등 수많은 고대의 탑이 이같은 소탑 공양의 방식에 의해 건립됐다. 특히 불

영락·풍경등 손상안돼 소탑신앙·사회상 보여줘

탑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소탑공덕에 대한 당시의 신앙심의 표현양식이다. 보통 99기나 77기의 소탑을 만들어 공양하는데 이는 당시 선호하던 숫자가 7과 9였으며, 양수(홀수·고대 사회에서 吉數로 간주함)를 한층 더 무한한 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소탑봉안은 또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 외에도 죽은 이를 추모하고 산 사람의 현재와 내세의 복락을 구

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목관경전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탑 내부의 사리장엄과 소탑 99기 봉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 법사리 공양에 따른 당시의 신앙심과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흥시 동국대학교수는 이번 발견된 금동탑에 대해 “신라시대 탑으로 영락장식과 풍경이 손상되지 않은 채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라탑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日 사천왕사·법흥사·법륜사 백제인 솜씨”

김정동교수 양국 사서·서기 기록 토대 입증

일본의 사천왕사, 법흥사, 법륜사는 6세기경 백제시대 건축가들이 일본에 건너가 인력과 기술을 동원 짚을 건축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3곳의 절이 백제 고유의 유형과 동일함인데 이들 절을 지어줬다는 우리나라의 사서류와 일본서기의 기록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김정동교수(목원대 건축공학)는 일본교포사회에서 발간되는 아리랑誌 최근호 ‘일본속의 한국건축현장’ 코너에서 ‘우리도 잊어버린 백제의 건

축가’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 글에서 일본서기 중 32대 수시은 천황 원년(588) 3월에 ‘백제 위덕왕이 와박사 마나부노, 능가문, 양귀문 등을 보내줘 기와 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돼 있어, 우리 사서류에서는 ‘588년 백제의 27대 위덕왕의 재위기간에 백제는 건축, 미술가 집단을 일본에 파견해 아스카데라(飛鳥寺)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 연대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국보급 아미타입상도·탱화 발굴

민간소장가 작년 日서 반입

고려불화와 조선불화 연구에 획기적 연구자료를 될 국보급 불화 2점이 발굴됐다. 이들 불화는 14세기 제작된 고려불화 ‘아미타여래입상도(阿彌陀如來立像圖)’와 1681년에 그려진 ‘감로탱화’로 지난해말 한 소장가가 일본에서 들여와 국보 지정신청,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미타여래입상도’는 대부분 아미타여래가 좌측으로 몸을 틀어 팔을 뻗고 있는 측면상인 것과는 달리 비단 바탕에 정교한 채색을 구사하며 정면상을 취하고 있어 주목



◇14세기 고려불화로 대부분이 측면상인 것과 달리 특이하게 정면상을 취한 국보급 아미타여래입상도.

얼마전 국내 최초로 감로탱화 자료집을 펴낸바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강우박 학예 연구실장은 감로탱화에 대해 “조선전기 감로탱화 양식과 조선 후기 양식을 연결해주는 고리에 해당하는 귀중한 연구자료”라고 평가했다.

비단바탕 채색 정면상

아미타입상도 감로탱화 금박장식등 양식 특이

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국내에 반입된 ‘감로탱화’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감로탱화(1649년)에 이어 두번째로 제작연대가 오래된 것으로 우측 하단에 그려진 아귀의 벌린 입안에 사람 둘이 그려져 있고 중단에 보이는 산수묘사에는 군데군데 금박장식을 넣는 등 표현양식이 특이해 조선전기 감로탱화에 또다른 양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홍문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이번에 발굴된 아미타여래 입상도는 속살이 비치는 비단바탕 등 전형적인 고려불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양식적 가치 외에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교계현안 정치공약화 하라”

불기협 '15대총선 토론'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교계의 적극적인 의견표출이 부족하여 불자들의 정치의식을 둔화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불교계의 현안을 정치 공약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가 지난 1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주최한 ‘제15대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주제의

“종교편향·환경문제 등 해결의지 있는 후보 선택”

성태용 교수(건국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발제한 심익섭교수(동국대)는 “지방자치제 1년과 불교계의 동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난해 지방자치선거는 본격적으로 불교가 나름대로의 자기목소리를 갖고자 노력했던 전환점이었다”고 전제하고 “김영삼정권의 탄생이후 정부의 종교 편파성을 제거하기 위해 불교계가 국가권력 감시역할, 시민의식 제고역할등 4·11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교수(국민대)는 ‘4·11 총선을

맞는 불교도의 자세’에서 “인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극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전한 비전과 상식 그리고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중시해야 한다”며 “불자들은 종교적 편향성, 환경문제, 전통문화에 대한 상식을 가진 후보를 판단하여 투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제도과장은 ‘종교활동과 선거법 적용’이라는 주제를 통해 “불교단체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결의하고, 불교단체명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권유할 수 없다”며 “사찰에서도 법회에서 신도들에게 후보자를 통상의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은 무방하나 스님이 신도들에게 지지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효림스님(살천불교 전국승가회), 정천구교수(인천대), 연기영교수(동국대)는 불교정책의 부재는 정교 유착에서 기인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불교정책을 반영 할 수 있는 인물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산청 나한전 석불상등 5점

경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경남도는 지난 15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산청 심숙사 나한전 석불상과 거창 송림사지 석조여래좌상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경남도는 또 밀양 만어산 여산불영을 기념물로, 함양 영은사지 석장승을 민속자

료로, 거창 성암사를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했다.

동대 '신라문화 12집' 발간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는 최근 ‘신라문화’ 제12집을 발간했다. 이번 12집에는 ‘철제동기구 소유변화에 대한 검토’ ‘상고기 신라유부의 성격에 대한 고찰’ 등 모두 8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전통 불교 의식 교육

한국 불교 전통 의식의 계승과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강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1996년 3월 27일(음력 2월 9일)~4월 1일(음력 2월 14일)까지 5박6일 간
- 장소: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승달산 선혜정사
- 참가 대상: 종단을 초월한 모든 사부대중
- 강습 내용: 안차비, 권공 및 작법 등
- 초청 강사 스님: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이일웅 스님
- 강습비: 5만원(숙식제공)
- 교통편: 광주고속 터미널(목포 무안 방면) → 무안 직행버스 터미널 하차 → 무안 군내버스(몽탄 방면) → 몽탄역 앞 하차 택시(5분 거리) → 선혜정사
- 연락처: 전남 무안군 선혜정사 (전화 0636/52-3508) 광주광역시 울곡사 (전화 062/263-4575)

한국불교 태고종 선혜정사 능산당 성원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8기 佛敎義式(범음·범패)學入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상주진공, 대령관공, 선종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 요점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3개월(각 과정)
- 원서접수: 1996년 3월 18일~4월 23일
- 개강일시: 1996년 4월 23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장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도포교인(사찰)장전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
·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 옆 경동빌딩 3층
TEL: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 式 教 育 院
學長 張 二 斗
院長 鄭 大 隱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입 합창단원 모집

90년 창단, 다수의 공연과 찬불 및 선법가 뮤직비디오를 제작중인 본 합창단은 앞으로도 정기 발표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찬불의 소리는 그윽합니다.
동참하셔서 법향 가득함을 느껴보십시오.

- 대상: 25세 ~ 45세의 여성으로서 성악이나 합창에 소질과 경험있는 분
- 오디션장소: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 강당 (범일동 국제호텔 뒤)
- 오디션일시: 1996. 3. 27 (水) 14 : 00
4. 10 (水) 14 : 00

※ 문의: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 (051) 634 - 5114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051) 403 - 7077